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⑭ 정각원 중단(신중단) 2

신중단, 방편 아닌 깨달음이어야

앞서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주법당인 정각원에 도착하여 영가단을 둘러본 후 신중단을 바라보았다. 정각원의 신중단은 '통일찰해도'로,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이 습합돼 있음을 살펴보았고, '신중'이란 매개를 통해 불교가 외도들의 신을 받아들인 것은 특이한 일임을 지적했다. 또 외도들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교의 구원과 관련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되며, 이를 천태지의(538~597)의 경문 이해에 맞춰 살펴보았다.

혹여 불교적 소양이 높은 독자분들은 그런 것이 다 방편(方便)인 줄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몇 회차 전 필자가 주로 보는 경전이 바로 방편의 경전인 〈법화경〉임도 밝혔고, 연재 초반에 방편을 주제로 잡은 내용도 있었다. 방편의 의미에 대해 필자도 나름의 사색이 있다는 말이다. 즉 필자가 생각하는 방편이야말로,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유불여불(唯佛與佛)의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애에서 거짓말할 권리라는 잘못된 생각에 관해서〉란 독특한 제목의 책에서 설사 인류 전체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하얀 거짓말은 없다는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대부분 상황에서 옳은 길을 제시해 준다고 평가받는다. 십여 년 전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크게 유행했을 때, 그 책에서 최종적인 정의와 윤리를 칸트에게서 찾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이 칸트의 윤리, '하얀 거짓말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탈것을 말했는데 나중에 훌륭한 큰 탈것만 준다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가?" 사리불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 사람은 절묘한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오게 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옵니다. 아이들이 모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화경〉 '제3 비유품'

〈법화경〉 '비유품'에는 그 유명한 삼계화택의 비유가 등장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부자가 잠시 밖을 나온 사이 집에 불이나 버렸다. 부자는 깜짝 놀라 집안의 식솔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만은 놀이에 빠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현명한 부자는 꾀를 내어 자식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불타는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이에 귀가 솔깃해진 자식들이 나와서 각자 원하는 수레를 달라고 하자 모두에게 '큰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고 이에 양이나 사슴 따위에도 만족할 자식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게 돼 모두 행복해했다는 이야기이다.



〈법화경〉 '비유품'의 삼계화택을 묘사한 돈황 막고굴 변상도.

사진 출처=돈황석굴감상총서(敦煌石窟鑒賞叢書) 제9분책, 제98굴

모든 중생은 이미 붓다의 지혜 갖춰
방편은 붓다만 아는 '유불여불' 경계
영가단 · 신중단 다른 것 방편 안 돼

〈화엄경〉 '여래성기품'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중생들을 친히 살펴보시니, 모두에게 붓다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상하고 이상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불교에서 붓다는 '일체지자', 즉, 전지자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벌이는 기행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불난 집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 바로 중생이다. 붓다인 부자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자식이라고 낳았더니 불난 지도 모르고 노는 아이들이라니. 그래서 고안한 것이 하얀 거짓말이다. 그들에게 양과 사슴, 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마지막에 하얀 소가 끄는 수레를 주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바로 이 '이상하고 이상한' 관계가 붓다와 중생의 관계다. 필자는 서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절대적 타자'의 관계로 본다.

다시 돌아와 붓다께서는 윤회 속에서 기행을 일삼는 중생들을 위해 양과 사슴이 끄는 수레, 교리적으로는 소승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화엄경〉의 말씀처럼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붓다의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붓다의 지혜인데, 성문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실 양과 사슴이 끄는 수레 따위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다. 그저 윤회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을 위한 붓다의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방편이다.

그런데 이는 칸트에게 비윤리적인 일일 뿐이다. 중생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거짓말을 한 붓다야말로 칸트가 말한 비난 유형에 딱 들어맞는 인물일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붓다의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말하지만, 방편은 '유불여불'의 경계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방편이라 칭하며 행하는 많은 거짓말과 기만은 대부분, 아니 전부 옳지 않은 일이다. 방편은 붓다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방편도 없이 어떻게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도겐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가르침을 설하기 이전의 임시방편 가르침은 전혀 이득이 없다. 최후에 설하신 진실한 가르침(〈법화경〉)만이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문제 삼지 말고, 언제나 진실로써 대답해야 한다."

– 〈정법안장수문기〉

우리로서는 붓다께서 말씀하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설프게 붓다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상불경보살처럼 매를 맞더라도 오로지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대들은 모두 붓다가 될 것이다'라고만 말해야 한다.

그렇기에 신중단을 방편이라 하고, 여기서 명확한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신중단 그 자체가 방편이 아니라 깨달음이어야 한다. 영가단을 계단 삼고, 신중단을 방편 삼아 불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영가단이 그 자체가 깨달음이어야 하고, 신중단 그 자체가 깨달음이어야 한다. 그 자체가 다른 것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들의 이름을 네모 속에 가두어 놓은 한자(漢字) 한 글자마다 깨달음을 개현(開顯)한 천태지의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동국대 박사〉

지장보살의 내세 원력으로 십악업 전환하는 불륜(佛輪)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㉘ 제9·10륜(輪)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지장십륜경〉 이야기는 제2권에서부터 시작하는 부처님의 열 가지 힘, 즉 '십륜품(十輪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왕의 치세(治世)에 따른 십륜과 비교하며, 지장보살을 내세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십륜[十佛輪]으로 중생들의 '십악업륜'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본래 서원에 따라 파계나 무계를 막론하고 비구를 욕해(辱害)하지 말 것과 국왕과 대신 등이 불법을 보호해 국토의 안온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십륜경〉의 '제9 왕륜(王輪)'에서는 "대왕은 그 나라 유정들의 종성(種姓)과 기예와 사업, 또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인과의 우열과 차별을 관찰하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으며 … 배움의 유무, 부귀와 빈천, 얼굴이 단정한지 누추한지 등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대로 다 안다. 또 목숨을 마치되, 제 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죽거나 왕법을 어겨 형(刑)을 받아 죽고 … 선업이나 악업을 짓다 죽은 것 등을 다 알며, 선행을 한 유정은 좋은 세계에 가고 악한 유정은 나쁜 세계에 갈 것을 생각하는 대로 다 안다. 그리하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지런히 몸, 말, 뜻의 선행을 닦고, 갖가지 방편을 베풀어 보시와 조복, 선정을 수행해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대왕은 이렇게 생각하여 … 살생, 도둑질, 음행을 떠나고 거짓말, 추악한 말, 이간질과 더러운 말 등과 탐욕, 분노, 삿된 소견 등을 모두 떠나서 십종공덕의 훌륭한 이익을 얻었느니라. 그것은 ①큰 명예와 ②많은 재보를 지니고 ③오묘한 색상과 ④많은 권속을 갖추며 ⑤병과 고민이 적고 ⑥벗과 권속이 불법을 많이 들으며 ⑦바른 행이 있는 이를 친근 공양하며 ⑧아름다운 명성이 널리 퍼지고 ⑨천신이 항상 호위하며 ⑩목숨이 다해 좋은 세계에 나서 안락함이라.

지장보살이여, 저 대왕은 이러한 제9륜을 성취하고 이로써 나라의 안락을 증진하며, 나쁜 벗을 항복 받아 그 몸을 잘 수호하고 수명을 더욱 길게 하느니라."

제9불륜(佛輪):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이처럼 저 모든 유정들의 생사에 관한 일을 여실히 잘 안다. 몸과 말과 뜻의 악행을 지어 성현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와 그 업인(業因)을 모두 갖추면,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 아귀, 축생에 나는 것을 여실하게 아느니라. 그리하여 저 중생들에 대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세 가지 신변(神變)을 나타내어 그들이 불법의 가르침으로 돌아와 믿음을 이루게 하느니라. 세 가지 신변이란 첫째는 신통의 신변, 둘째는 설법의 신변, 셋째는 교계(教誡)의 신변이다. 이로써 유정을 격려하고 세간과 출세간의 믿음을 이루게 하며 유정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이러한 제9불륜을 성취해 무량한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나는 대선(大仙)의 높은 자리에서 불륜을 굴려 … 외도들의 삿된 주장을 꺾는다'고 말하며 대중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자후하느니라."

〈지장십륜경〉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인 제10왕륜(王輪)에서도 "대왕은 모든 유정들을 보살피고, 일체 천신에게 꽃과 음악, 그 밖의 공양거리를 올린다. 그때 일체 천신과 용왕 … 마후라가왕은 의논해 그를 '전륜왕이 되게 해 사주(四洲)를 통솔하게 하고, 중생들의 병을 없애서 안락하게 하자'는 원력을 세워, 그로 하여금 사주를 자재하게 통솔하게 한다. 그들의 천명(千名)은 용맹·단정하고 원수를 모두 무찌르며, 왕의 대지를 지나 바다 끝까지 벌주는 일이 다 없어지고 칼 따위를 쓰지 않아도 모두가 바른 법과 안락을 받는다."

"지장보살이여, 저 대왕은 이러한 제10왕륜을 성취하고, 사대주와 팔만사천의 소주(小州)에 이르는 일체 유정을 편히 살게 하며, 십종의 선업으로 그 몸을 잘 수호하고 수명을 늘린다."

제10불륜(佛輪):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과거 보살 지위에 있을 때, 자기와 남에게 있는 무량한 번뇌의 병을 알고서 선정의 향수로 몸을 씻고 사제법(四諦法, 고苦제, 집集제, 멸滅제, 도道제)과 대자대비로 머리를 감고 부끄러움의 옷을 입었다. … 그때 나는 복과 슬기의 힘으로 용맹정진해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諦法]를 여실히 알았으며, 위없는 정등각을 증득하였느니라."

"… 이 십불륜(十佛輪)의 말씀을 들은 대중 가운데, 팔십사백천 나유타의 보살마하살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무량한 보살마하살은 갖가지 다라니와 삼마지(三摩地)와 인가(認可)를 얻었으며, 무량한 유정들은 위없는 정등각에 대한 마음을 내어 물러나지 않게 되었고, 또 무량한 유정들은 모두 과증(果證)을 얻었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